

### 3/22(화) 스가랴 묵상 25

#### 스가랴 14: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온갖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 소란하고 사탄의 세력이 끝까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그 날에는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 여호와와 날

스가랴서의 마지막 14장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1절, “여호와와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 날’은 ‘여호와와 날’을 뜻하는 것으로 스가랴서 전체에서 23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 속 14장에만 7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4, 6-9, 13, 20-21).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와 날’은 주전 760년경에 쓰여진 아모스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암 5:18,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와 날’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한편, 본문 2절은 그 심판이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되며 성읍 백성들 중에 절반이나 사로잡혀 될 것입니다(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 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마 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 날’에는 주님께서 직접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3절,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즉,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치시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4-5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골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와 날이 감람 산에 친히 서시고 지진까지 동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사 40:15-17,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 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의 완성

여호와와 날 즉 재림의 그 날이 도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 본문은 말씀합니다(6절,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7-8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족한 인간 통치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스가랴서의 말씀이 일치될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계 21:2-4,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그 날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은 이 세상 종말의 날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새롭게 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죽었던 육체는 부활되고 산 사람들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소망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크고 작고 문제와 고통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페어필드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